

e-KIET 산업경제정보

2011년 거시경제 전망

[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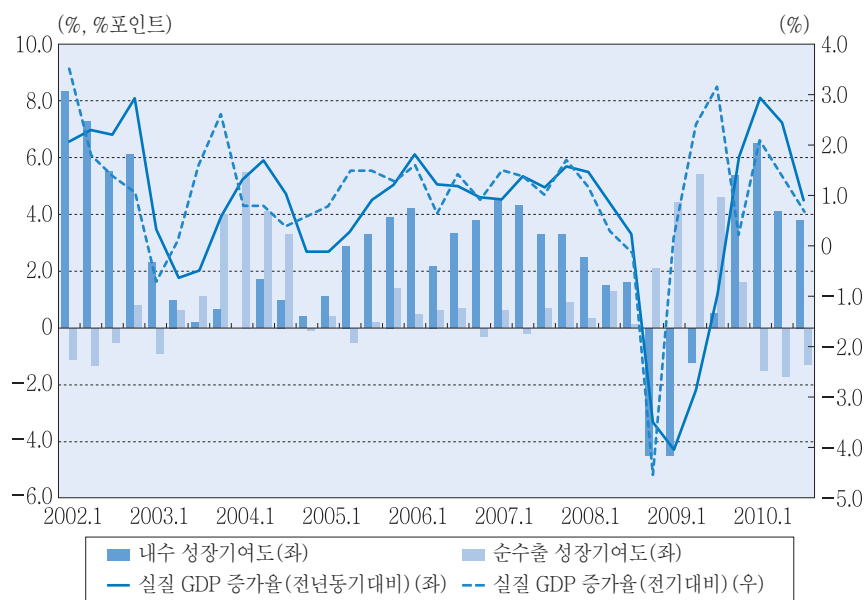
- 2011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침체 이후의 반등효과 소멸, 경기부양 효과 소진, 세계경기 회복세 둔화 등으로 금년(6.2%)보다 낮은 4.3% 전망
 - － 민간소비는 꾸준한 증가세가 이어지나,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와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설비투자와 수출 증가세는 상당 폭 둔화될 전망
 - － 상·하반기 비슷한 성장 흐름을 보이면서, 2000년 이후의 추세성장률에 근접한 전기비 분기 평균 1~1.1% 정도의 성장을 이어갈 전망
 - － 대외적으로는 유럽 재정불안을 비롯한 세계경제 불안요인 확산 가능성,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부담과 환율 하락속도 등이 주요 하방 위험요인(downside risk)으로 작용할 전망
- 민간소비는 소득 회복과 고용 여건 개선으로 꾸준한 회복기조를 이어가나, 주택경기 부진 및 금리 인상과 연계된 가계부채 부담이 억제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연간 4% 내외의 증가를 예상
- 설비투자는 국내외 경기 회복세의 둔화, 세계경제 불확실성의 잔존 등으로 인해 2010년에 비해 크게 낮아진 7%대의 증가를 보일 전망
- 수출은 기저효과 소멸과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환율 하락 및 주요 업종의 경쟁격화 등으로 연간 증가율이 10% 내외로 하락할 전망이며, 수입은 내수 경기 회복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수출보다 높은 14% 내외의 증가를 예상
- 중기적으로는 선진국의 부채 재조정에 따른 저성장 기조와 금융위기 이후 파생된 불안요인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과거 추세보다 다소 낮은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

1. 국내 경기상황 판단

□ 빠른 회복세, 최근 들어 다소 둔화 추이

- 국내경기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세계 금융위기의 경기침체로부터 매우 빠른 회복세를 보여 왔으나, 금년 하반기 들어 회복 속도가 다소 감속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지난 2010년 1~3분기 실질GDP는 전년동기비 6.5%, 전기비 1.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3분기 들어 상반기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
 - 전기비 GDP 성장률 [2010년 상반기] 1.8% → [2010년 3/4분기] 0.7%
- 다만 3분기 성장세 둔화는 주로 정부소비(전기비 -0.6%)와 재고투자의 감소(GDP 성장기여도 -0.6%포인트)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를 제외한 민간 내수(민간소비와 고정투자)의 성장세는 상반기에 못지 않아 기본적인 내수 회복기조는 이어지고 있음.

〈그림 1〉 GDP 성장률 추이



- 민간소비 증가율(전기비) [2010년 상반기] 0.8% → [3/4분기] 1.3%
- 설비투자 증가율(전기비) [2010년 상반기] 5.8% → [3/4분기] 6.3%
- 건설투자 증가율(전기비) [2010년 상반기] -1.2% → [3/4분기] 1.5%
- 외수 부문의 경우 3분기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0.2%포인트(전기비)로 상반기와 같은 수준이나, 재화 수출증가율은 상반기 5.3%(전기비)에서 3분기 1.9%로 둔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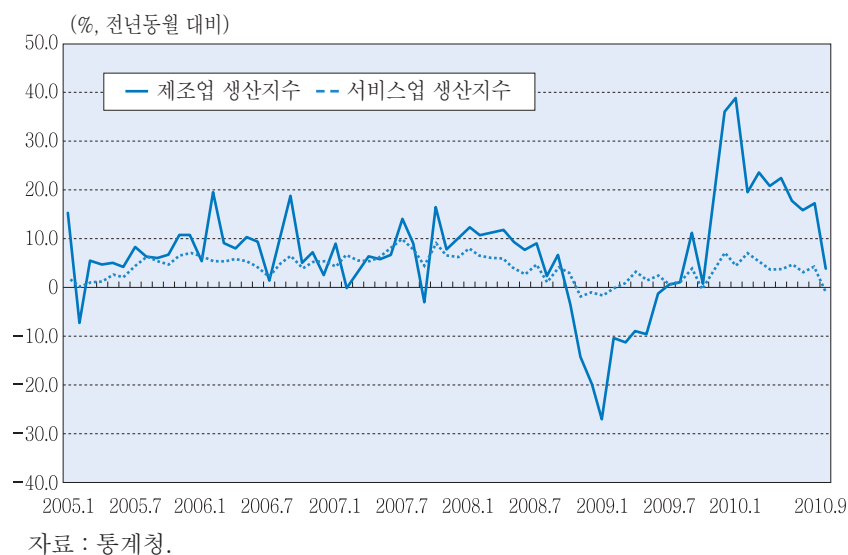
□ 4분기에도 다소 낮은 성장세 이어질 전망

○ 산업생산과 경기지수도 최근 들어 전반적으로 둔화 추이를 보임.

- 산업생산 및 서비스생산 증가율(전기비)이나 경기동행지수, 제조업 가동률 등은 8월 이후에 하락세를 나타냄.
- 광공업생산(%) [2010년 2/4분기] 5.0 → [7월] 1.1 → [8월] -1.3 → [9월] -0.4
- 서비스생산(%) [2010년 2/4분기] 0.6 → [7월] -1.3 → [8월] -0.1 → [9월] -0.4

〈그림 2〉

제조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 추이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2010년 6월] 101.7 → [7월] 102.2 → [8월] 102.1 → [9월] 101.3

－ 제조업 재고/출하 순환도 역시 경기상승세의 둔화를 반영함.

○ 전체적으로 볼 때 경기부양 효과의 소진과 침체 직후의 반등효과 소멸, 세계 경기의 회복세 둔화 등에 따라 최근 국내경기의 회복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전체적인 경기 흐름이나 BSI 등 심리지표, 여타 선행지표들의 추이를 볼 때, 4분기에도 상반기보다 다소 낮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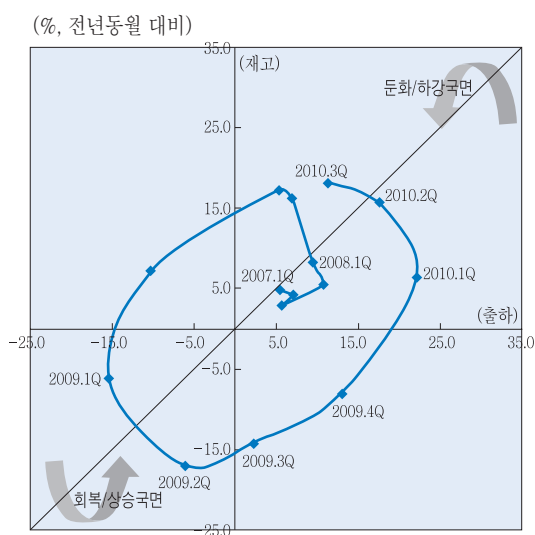
－ 경기선행지수와 여타 선행지표들, 제조업 재고/출하 순환도 등의 추이를 볼 때, 경기회복세의 둔화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선행지수 전년동월비(%) [2010년 7월] 6.8 → [8월] 5.9 → [9월] 4.9

· 기계수주(전기비) [2/4분기] 24.2% → [3/4분기]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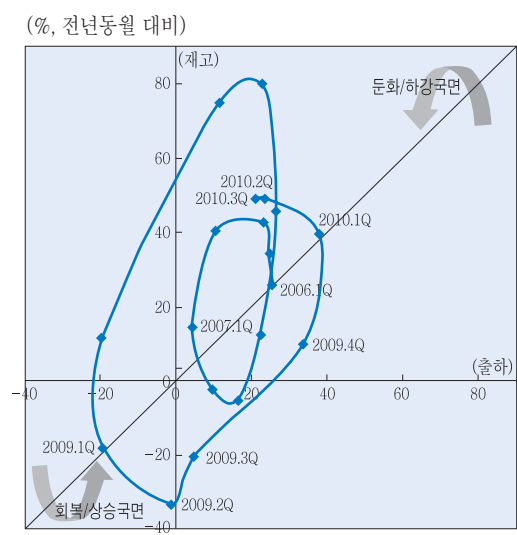
· 건설수주(전기비) [2/4분기] -6.6% → [3/4분기] -5.0%

〈그림 3〉 제조업 재고-출하 순환
(2007.1Q~2010.3Q)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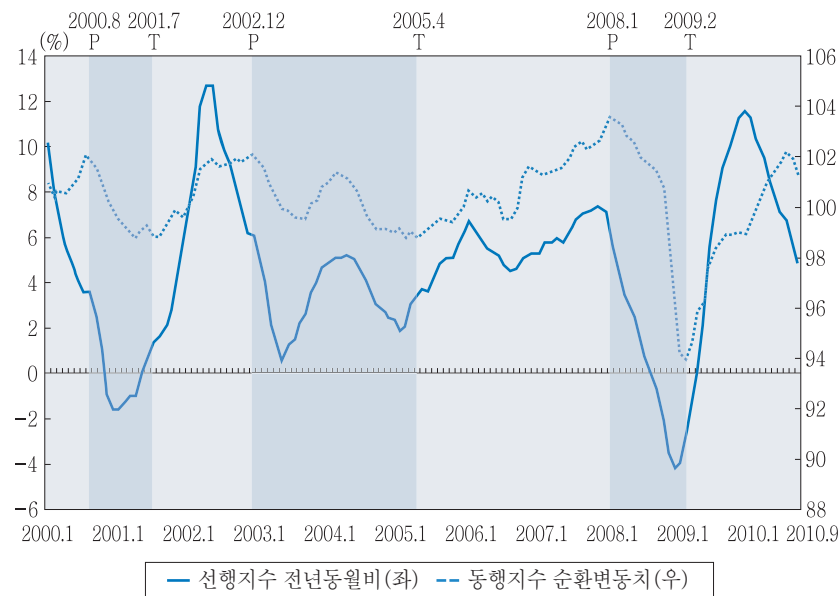
〈그림 4〉 제조업 ICT 재고-출하 순환
(2006.1Q~2010.3Q)



자료 : 통계청.

〈그림 5〉

경기종합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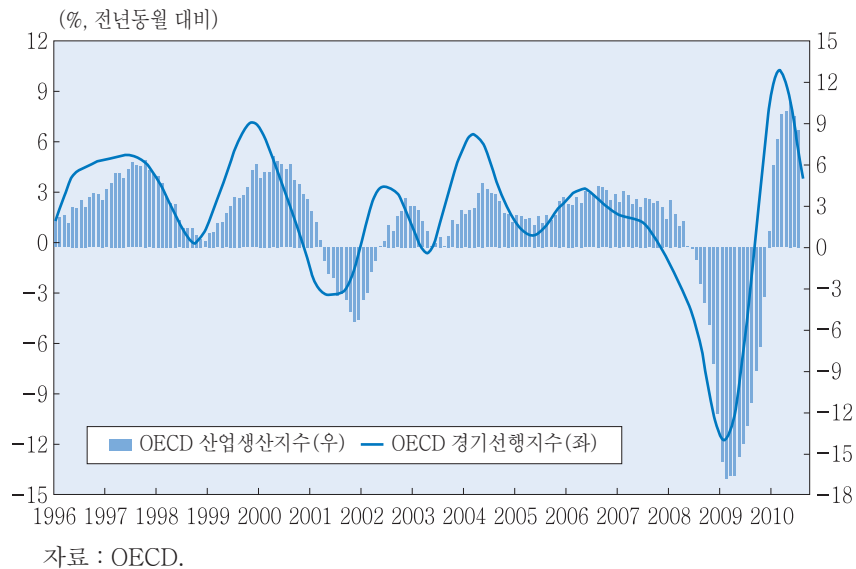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 대외여건 전망

□ 2011년 세계경기 회복세, 2010년 대비 둔화 전망

-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가 플러스 성장률을 회복하면서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여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임.
 - 경기급락 이후의 반등 효과나 정책당국의 경기부양 효과 등이 소멸되면서 주요국 경제의 회복속도가 점차적으로 둔화됨.
 - 최근 들어서는 유럽 재정위기 부각, 미국경제의 더블딥 가능성 논쟁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재연되고 있음.
 - OECD 산업생산지수와 선행지수도 최근에 하락세가 뚜렷함.
- 세계경제는 2010년에 4%대 후반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2011년에는 대다수 국가들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세계경제 성장률은 4% 내외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그림 6〉 OECD 산업생산지수 및 경기선행지수 변화율 추이



- 금융시장의 안정과 신흥국의 고성장 등으로 인해 세계경기의 재침체 가능성은 낮지만, 유럽 재정위기의 불확실성과 전 세계적인 실업 및 가계부채 문제, 추가적인 정책 효과의 한계 등 불안요인이 상존함.
- 세계경기 향방의 주요 관건은 금융위기 직후에 각국이 대규모로 시행한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점차 소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내적으로 실업 문

〈표 1〉 주요국의 성장률 추이와 전망

단위 : %, 전년동기비

	2009	2010				2011 (전망)
		1/4분기	2/4분기	3/4분기	연간(전망)	
세계경제	-0.6	-	-	-	4.8	4.2
OECD	-3.2	2.4	3.1	3.1	2.7	2.2
미국	-2.6	2.4	3.0	3.2	2.6	2.3
일본	-5.2	5.0	2.7	4.4	2.8	1.5
유로	-4.1	0.8	1.9	1.9	1.7	1.5
중국	9.1	11.9	10.3	9.6	10.5	9.6
세계교역	-11.0	-	-	-	11.4	7.0

자료 : IMF, 미 상무부, 일본 내각부, 유로 통계청, 중국 국가정보센터.

제와 가계부채 문제, 정부부채 급증 문제 등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달려 있음.

- 세계교역은 세계 실물경기 성장세의 둔화 영향과 더불어 글로벌 불균형 해소 문제를 둘러싼 환율 갈등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등으로 인해 연간 신장률이 2010년 11%대에서 2011년에는 7%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2011년 국제 유가, 추가 상승세 둔화 전망

- 지난해 연중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인 국제 유가는 올해 들어서 실물경기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지지 못하고, 배럴당 65~85달러의 범위에서 제한적인 움직임을 나타냄.
 - 금융위기를 전후로 국제 유가가 급등세와 급락세를 보인 것을 제외하면, 국제 유가는 금융위기 이전의 배럴당 50~80달러에서 약간 상향 이동한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음.
 - 올 상반기 실물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는 한때 배럴당 최고 87달러대까지 상승하였으나, 유럽 재정위기 우려감으로 최저 68달러까지 떨어졌고, 이후 보합세를 보임.

〈표 2〉 2010년 및 2011년 국제 유가 전망

단위 : 달러/배럴, %

	WTI			Brent			Dubai	3대 평균
전망기관	EIA	PIRA	CERA ¹⁾	PIRA	CERA ¹⁾	CGES ²⁾	CERA ¹⁾	IMF
전망시점	10.13	10.28	10.22	10.28	10.22	10.25	10.22	10.6
2010년	78.0	79.1	79.1	79.2	78.5	78.3	77.3	76.2
2011년 (상승률)	83.0 (6.4)	88.6 (12.0)	87.2 (10.2)	89.0 (12.4)	85.8 (9.3)	83.6 (6.8)	84.2 (8.9)	78.8 (3.3)

자료 : EIA, PIRA, CERA, CGES, IMF.

주 : 1) 시나리오별 전망치의 수정값.

2) 기준유가 시나리오 전망.

- 국제 유가는 올해 연평균 약 20%대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경기가 재침체로 빠지지 않는 한 2011년에는 올해보다 약간 높은 변동 범위에서 상승률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미 달러화의 약세와 OPEC 산유국들의 유가 하락 억제 등이 유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세계경제 성장세의 둔화와 원유 재고량의 높은 수준 등이 유가의 추가 상승세를 제한할 것임.
- 2011년 국제유가는 2010년보다 상승폭이 작은 9% 내외의 상승률로서 연평균 80달러대 중반(두바이유 기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원/달러 환율 : 완만한 하락세 전망

- 올해 원/달러 환율은 1,154.8원으로 시작해 연초 한때 1,100원대까지 하락하였으나, 유럽발 재정위기와 천안함 사태 등으로 1,250원대까지 상승한 후 다시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음.
- 향후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추가적인 통화완화 정책 예상과 수출 확대를 위한 미국 정부의 약달러 정책 지속,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으로

〈그림 7〉 2010년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완만한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 원화 환율의 하락 속도에는 미국의 통화정책 등과 더불어 위안화 환율의 움직임 등도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서울 G20 정상회담 이후 제한적인 자본유입 규제와 허용으로 정부의 자본유출입 규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환율의 급락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2011년 원/달러 환율은 2010년(평균 1,150원 내외, 전년비 -9.9%) 대비 약 6.0% 하락한 연평균 1,080원 내외가 예상됨.
- 엔화는 2010년 말까지 달러당 80엔대 초반에서 조정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보이나, 일본 경제의 취약한 펀더멘털과 높은 국가부채 수준을 감안할 때 연말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위안화 환율은 중국의 인플레이션 우려와 위안화에 대한 투기심리 억제 의지,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제공조 등으로 절상 기조가 예상되나, 최근 서울 G20 회의 결과나 중국 내부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절상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됨.

3. 2011년 국내경제 전망

□ 경제성장 : 연간 4%대 초반 예상

- 세계경기 회복세가 2010년 하반기 이후 둔화되고 있는 데다, 대내적으로도 경기부양 효과의 감소, 침체 이후 반등효과의 소멸 등으로 2011년 국내경제는 2010년 6.2%에 비해 상당폭 하락한 4.3% 정도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민간소비는 꾸준한 증가세가 이어지나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높은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설비투자는 증가율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건설투자는 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 세계경기 회복세 둔화, 중국 정부의 긴축, 환율 하락 등으로 외수 부문의 성장기여 역시 2010년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전체적으로 상하반기 비슷한 성장 흐름을 보이면서, 2000년 이후의 추세 성장률에 근접한 전기비 분기 평균 1~1.1% 정도의 성장이 예상됨.
- 대외적으로 유럽 재정위기의 재연 가능성, 미국경제의 더블딥 가능성, 환율 및 무역 분쟁의 확산 가능성 등 잠재적인 불안요인들이 2011년에도 가장 큰 하방 위험 요인들로 작용할 전망이다.
 - 아울러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확대된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 폭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최근 인플레이 압력이 높아지고 중국 정부가 긴축을 강화하면서 내년도 중국경제 성장률은 상당폭의 하락이 예상되고 있음.
- 대내적으로는 비교적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와 원화 절상 속도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비율(가처분소득 대비)은 출구전략에 따른 금리 인상이나 주택경기 부진과 더불어 가계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 소비와 전체 경기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 국제적인 환율 분쟁의 확산이나 미 달러화 약세의 급진전 등으로 인해 원화 환율이 상기 전망의 전제보다 훨씬 빠르게 하락할 경우 수출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함.
- 반면 금융위기 직후의 재고 감축 규모를 고려할 때 재고재축적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재고투자는 여전히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요인(upside risk)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재고 변동의 GDP 성장기여도(전년동기비, () 안은 GDP 성장률)
 [2010년 1분기] 2.2%포인트 (8.1%) → [2분기] 4.5%포인트 (7.2%)
 → [3분기] 1.8%포인트 (4.5%)

- 중기적으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부채 재조정에 따른 저성장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고, 세계경제 불안요인들이 완전히 해소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 민간소비 : 4% 내외 증가 예상

- 전반적인 소득 및 고용의 회복 추세를 반영하여 민간소비는 2011년에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높은 가계부채 수준의 부담, 임금 및 가계소득 증가세의 상대적인 부진 등에 따라 높은 증가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임.
 - 최근 주가 상승 등에 따라 자산증가율이 부채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으나, 가계부채/가처분소득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에 있어 중장기적으로 부채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소비 회복 속도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특히 출구전략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과 주택경기 부진 등에 따라 가계부채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음.
- 2011년 민간소비는 올해와 비슷한 4% 내외의 증가가 예상됨.

〈표 3〉

민간소비 관련 지표 추이

단위 : %, 전년동기비

	2008	2009					2010		
		1/4	2/4	3/4	4/4	연간	1/4	2/4	3/4
민간소비 (국민계정)	1.3	-4.4 (0.3)	-1.0 (3.3)	0.7 (1.7)	5.8 (0.4)	0.2	6.3 (0.7)	3.7 (0.8)	3.3 (1.3)
소매판매액지수	1.1	-4.7 (1.0)	1.5 (5.1)	2.8 (0.3)	10.8 (4.1)	2.6	9.9 (0.5)	4.9 (0.0)	7.4 (2.8)
실질 GNI	-0.6	-5.4 (-0.7)	-0.2 (4.9)	3.7 (1.1)	7.5 (2.7)	1.5	8.9 (0.9)	5.4 (0.5)	- -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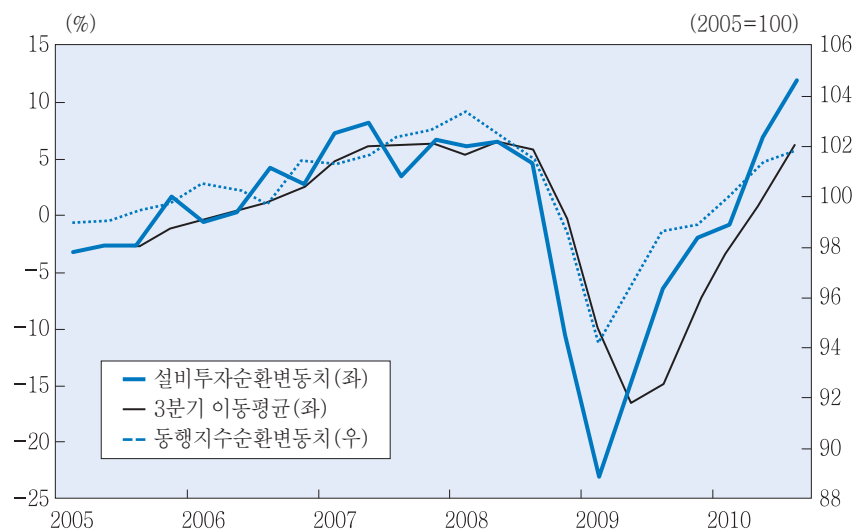
주 : () 안은 전기비.

□ 설비투자 : 연간 7%대로 증가율 둔화 전망

- 설비투자는 경기회복 초기의 반등효과가 소멸되고 국내외 경기회복세의 둔화, 세계경제 불확실성의 잔존 등에 따라서 2011년 중 2010년 23.9%보다 크게 낮은 연간 7%대의 증가율이 예상됨.
- － 설비투자 선행지표 가운데 국내 기계수주(선박 제외)는 3분기 연속 전년 동기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증가 속도가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전기비로는 3분기 들어 감소세(-3.7%)로 전환됨.
- － 시설확충도 지난해의 경기침체로 인해 유보되었던 것이 2010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설비투자 조정압력은 3분기 연속 축소되고 있는 상황임(<표 4> 참조).
- － 원화 환율의 하락세, 수출 둔화 및 미국경제 더블딥 우려 등에 따른 국내외 경기의 불확실성 등이 내년 설비투자 증가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림 8〉

설비투자의 순환국면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설비투자순환변동치 = $\log(\text{설비투자}/\text{설비투자 HP추세}) \times 10$.

〈표 4〉

제조업 설비투자 조정압력 추이

단위 : %포인트

	2009	2010		
		1/4	2/4	3/4
제조업 전체	-3.5	21.7	14.4	5.6
일반기계	-18.0	34.8	45.8	38.7
영상·음향기기	11.8	40.7	43.5	17.9
자동차	-5.4	50.7	35.4	16.3
철강	-11.5	36.1	21.6	2.7
통신장비	-7.7	2.5	-2.9	-1.2
반도체	0.4	32.0	-2.6	-10.3
선박	4.9	-15.7	-19.5	-20.9

자료 : 통계청.

주 : 설비투자조정압력은 제조업 생산지수증가율-제조업 생산능력 증가율.

□ 건설투자 : 부진 이어질 전망

- 건설투자는 최근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2011년에도 부진을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건설투자 위축이 지속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건설투자도 최근 들어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건설투자 위축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
- 미분양 주택수가 서서히 줄어들고는 있으나, 2010년 8월 현재 여전히 10만 3,000호에 달하는 물량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민간 주택시장의 급속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2011년에도 건설투자는 부진이 이어지면서 0%대의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표 5〉

건설투자 관련 지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

		2009	2010		
			1/4	2/4	3/4
건설투자		4.4	2.3(1.3)	-2.9(-3.6)	-2.1(1.5)
주체별	민간	0.2	1.9	-0.4	-
	정부	16.8	3.6	-8.5	-
형태별	건물	-1.8	1.7(-0.9)	-6.3(-3.8)	-
	토목	13.3	3.1(4.0)	1.1(-3.4)	-
건설수주총액		3.0	-6.9	-6.6	-5.0
건축허가면적		-12.9	36.5	47.4	-14.3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국토해양부.

주 : () 안은 계절조정계열의 전기대비 증감률.

□ 수출입 : 수출 증가율 10% 내외, 무역흑자 290억 달러 전망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감하였던 수출은 2009년 4분기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2010년 들어서도 10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30.4%의 큰 폭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음.
 - 이 같은 수출 호조는 세계경기 회복과 수출단가의 상승, IT제품의 수출호조,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임.
 - 수출단가는 2010년 1~8월 중 전년동기 대비 14.5%나 상승하였으며, 수출물량도 세계경기의 회복에 힘입어 17.9%나 증가함.
- 지역별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던 중국, 아세안, 중남미 등 대개도국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임.
 - 2010년 1~9월 중 대선진국 수출도 25.5%의 높은 증가를 보였으나, 대개도국 수출은 이보다 훨씬 높은 32.5%의 증가율을 기록함.
- 업종별로는 무선통신기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력업종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반도체,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화학, 석유제품, 디스플레이 등

〈표 6〉

최근 수출입 동향

단위 : 억 달러, %

	2009		2010				
	연간	4/4	1/4	2/4	3/4	10월	1~10월
수출	3,635 (-13.9)	1,037 (11.7)	1,011 (35.8)	1,203 (33.1)	1,173 (23.7)	441 (29.9)	3,827 (30.4)
수입	3,231 (-25.8)	929 (1.4)	981 (37.4)	1,058 (43.0)	1,057 (24.5)	372 (22.4)	3,468 (33.1)
무역수지	404	111	30	145	116	69	360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6개 품목이 전체 수출증가의 약 62%를 차지함.

- 2011년 수출은 기저효과의 소멸과 세계경기 둔화, 원화 절상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반도체 등 IT제품의 경쟁 격화와 가격 하락 등으로 증가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10% 내외의 증가가 예상됨.
 - 선진국의 통화절상 압력과 자본시장으로의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으로 원화 절상 추세가 지속되면서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전망이다.
 - 글로벌 경기 회복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산업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진전되고, 선진국 기업들의 투자 확대 등 공격적인 경영이 가세하면서 자동차, IT제품 등의 수출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임.
- 2010년 수입은 전년도 수입 급감의 기저효과와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수출용 설비도입 증가, 소비 회복 등으로 10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33.1%나 급증함.
- 2011년 수입은 내수 경기 회복,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수출 증가율보다 약간 높은 14%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 수출보다 수입이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2011년 무역흑자 규모는 2010년 420억 달러보다 줄어든 290억 달러 내외로 전망됨.

